



한덕수 국무총리, 모로코 종교학자평의회 사무총장 접견

- 모로코 지진 피해 관련 애도 및 우리 정부의 지원 의사 표명
-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간 대화와 화합 필요성 공감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9.19(화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(KF)의 초청으로 방한중인 「아흐메드 아바디(Ahmed Abaddi)」 모로코 종교학자평의회 사무총장을 접견하였다.
-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모로코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위로를 표하면서, 지난 G20 정상회의 계기 우리 대통령이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모로코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.
 - 아바디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지원 의사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.
- 또한, 한 총리는 아바디 사무총장이 교육을 통해 모로코 청년들의 극단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온 것을 평가하였으며, 한 총리와 아바디 사무총장은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를 억제하는 데에 함께 노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박영철	044-200-2136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박철순	044-200-2135